

여야 대치 속 5·18 진상규명조사위 출범 8개월째 표류

한국당 조사위원 '능장 추천' 구성조차 못해 문대통령 의지 재확인...진상규명 탄력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39주년 5·18기념식에서 5·18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진상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몫 추천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는 등 여야 대치로 인해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표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 기념식 기

념사에서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14일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다.

특별법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행위와 책임자, 헬기 사격, 암매장지 소재와 유해 발굴, 행방 불명자 소재 등을 진상조사위 조사 범위로 규정했다.

한국당 요구로 북한군 개입 여부도 포함했다.

또한 특별법은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문제는 조사위원 추천 실무 과정에서 발생했다. 우선 한국당 몫 위원 추천이

늦어졌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박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성춘 송원대 교수,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각각 일찌감치 추천했다. 바른미래당도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지만원씨를 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다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뒤늦게 추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

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한국당의 재추천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은 오히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정 교수가 '피해 당사자'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사위를 조기에 구성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대치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관련 논의도 멈춰섰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몫 2명을 뺀 7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개문발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특별법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고, 7인만의 출범 강행이 또 다른 시뮬거리를 낳을 수도 있는 만큼 여야는 완전한 형태의 위원회 출범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자
/연합뉴스

끝나지 않은 '진실찾기'...금남로 1만여명 모였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 요구 정부 기념식 후 자체 행사 이례적

광주 금남로가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합성소리로 가득 메워졌다.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금남로 일대에서 '5·18 진상규명!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망언 의원 퇴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5·18기념일에 정부 공식 기념식 이후 별도의 행사가 열린 건 이례적 일이다. 도로 넘어선 5·18 애곡을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광주 시민들의 깊은 염원이 담긴 셈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 비롯해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했다. 아이들이 숨주먹을 쥐고선 위 아래로 흔들며 지휘자 선생님의 지휘에 따라 가느다랗고 맑은 목소리로 불러 금남로 일대를 모두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님 행진곡'을 부른 한별초등학교 5학년 이윤주양과 이윤아양은 "노래 부를 때 다들 울고 있어서 마음 아팠어요. 저는 웃어줬으면 했는데... 내내에도 노래 부르게 된다면 그뻘 옷개 해드리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위 김상근 공동위원장은 "더는 역사 왜곡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적폐청산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인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망언 의원 퇴출!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대기자

김재규 위원장 역시 "80년 5월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음으로 투쟁했다"며 "5·18에서 이어진 6월항쟁과 촛불혁명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김후식 위원장은 "5월 광주의 정신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회고록을 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의 주제 발언이 이어졌다.

5·18 항쟁 당시 전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한 미 육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도 영상을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역사 왜곡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광주의 염원을 담은 춤과 노래 등 문화공연도 이어졌다. 광주출정가와 아침이슬,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음악 낭독극이 펼쳐졌고, 망언 의원을 퇴출하자는 내용의 촛극을 선보였다.

행사 마지막엔 자유한국당 해체 등의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시민들 머리위로 펼쳐져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 시장은 "5·18의 아프고 시린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패륜 정치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울분과 분노를 뛰어넘어 승리의 역사로 세워가자"고 당부했다.

박 시장도 "은 국민이 합의한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나"며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률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철현기자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움직임"

목적자 폴 코트라이트씨, 당시 참상 담은 책 집필 나서

1980년 5·18 당시 광주와 나주를 오가며 그날의 진실을 생생히 목격한 폴 코트라이트씨가 광주시청을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했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17일 폴씨와 면담하고 앞장서서 증언을 해준 용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폴씨는 1980년 당시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나주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5월19일 광주 터미널에서 군인이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다.

폴씨는 39년 전 5·18민주화운동을 외부인의 시선에서 생생히 바라본 '광주의 목격(가제)'이라는 책을 집필중이다.

그는 "그 당시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의미가 빛바래고 있는 현재 시대에 당시의 처절한 경험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

다"고 말했다.

폴씨는 "서울에 가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움직임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광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아이와 노인까지 모두 이해하는 민중항쟁으로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5·18항쟁의 진실에 대한 증언뿐만 아니라 책을 집필하며 전 세계에 5·18항쟁의 참상을 전하려는 폴씨의 용기와 노력에 광주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담은 책이 출간돼 광주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항교안, 격렬 항의 속 5·18기념식 참석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 광주를 찾은 자유한국당 항교안 대표가 일부 시민의 격렬한 반발 속에 기념식장에 들어섰다.

이날 오전 9시30분 대형버스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도착한 항 대표의 일부 시민들과 시위대의 육탄 항의와 마주했다.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해온 5·18단체 회원 등 수백명은 "어디를 오느냐"며 버스에서 내린 항 대표를 향해 돌진했다.

경찰 등 경호 인력이 인간 피를 만들어 항 대표를 기념식장 안쪽으로 이동시키려 하면서 현장에서는 밀고 당기는 격

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항 대표는 민주의 문 앞에서 인파에 둘러싸여 사실상 갇히기도 했다. 물러드는 인파로 경호 저지선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항 대표를 향한 시위는 민주의 문 안쪽에서도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비에 젖은 바닥에 드러누워 항 대표의 입장 저지를 시도했다. 이들을 가까스로 피한 항 대표는 결국 15분여 만에 기념식장 보안검색대에 도착해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항 대표와 같은 버스를 타고 기념식장에 온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와 다른 경로를 통해 별다른 충돌 없이 기념식장에 자리했다. /최환준기자

제대로 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광주시민 5·18 시 낭송회

융·복합미디어로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 온 광주매일신문이 문학메카낭송 포럼과 함께 시낭송회를 개최합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위한 금번 시낭송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제대로 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
- 일시 : 2019년 5월 23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5층)
-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 주관 : 문학메카낭송포럼
- 문의 : 광주매일신문 기획실 (062-650-2007 · 2078)